



조경수종 선택이용과 개발



박형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

지금까지는 조경수생산자들이 재배수종을 선택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조경공사때 많이 쓰이는 수종이 알려지게 되면 그 수종만을 너도 나도 생산함으로써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하는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무계획적 생산체계라 할 수 있다. 조경수종 생산업자들은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수종의 판로, 즉 그 공급시기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조경수종 수요에 관한 정보가 어둡고, 일정한 수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상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경설계자들은 새로운 수종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더라도 생산정보가 없어 구하

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량이 확보될 수 없었다. 조달청에서 고시되고 있는 수종을 주로 이용하고 신규수종에 대한 수요가 없고 이것이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수종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적지적소에 식재될 수 있는 새로운 수종의 보급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조경수종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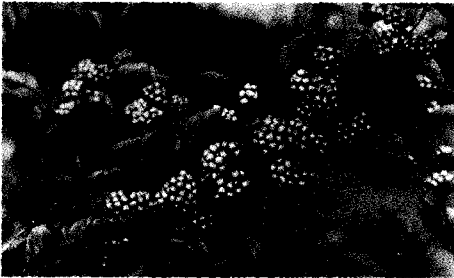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조경수종은 시각적, 공간적 대상으로 수종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경수종의 경관구성요소로서 조경수종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수종으로부터 발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수종의 발아, 신엽, 개화, 녹음, 단풍, 결실, 낙엽등으로 이어지는 계절적인 변화로 절기의 변화가 뚜렷한 것들의 의미가 더욱 부각 되고있다. 여름의 녹색이 가장 강렬한 시각적특성이나 가을의 다양한 단풍색깔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



▲삼색벚꽃나무

록 배치하는 것은 조경계획을 세울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조경수종은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조경설계도면에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식물육종방법이 발전됨에따라 교목인수종이 왜성형, 수양형, 포복형, Compact형등으로 변이될수 있으며, 관목수종이 교목성인 직립성 수종으로 개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종명만으로는 수종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이용

을 위한 표기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음에 비추어 조경설계도 단순히 수종명의 나열을 지양하고 뚜렷한 구별방법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위:종작살나무 아래:산수국

2. 조경수종의 선택

조경수종의 선택은 성상, 수형, 꽃, 열매등 관상적 가치와 토양, 기후등 환경적 요인 및 생태적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은 지역적 특색이나 환경을 무시하고 획일적이며, 단순한 몇몇 수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경소재의 빈곤을 보여주고 있다. 조경수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외래 도입종보다는 그 지방의 기후나 토양에 적응되어 온 향토수종개발 보

급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선의 요소인 조경수종의 도입은 공원 이용자의 심리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에 식재

되는 수종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미적인 가치뿐만아니라 도시의 건강성을 위한 구비조건으로서 환경정화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악화된 도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당한 수종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공원에 식재하는 공원수는 시각적으로 풍부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좋다.

3. 조경수종이용

조경수종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서 같은 수종이라도 용도가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새로운 조경수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수종을 특정 수형에만 국한하여 연상하는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탈피하여 조경수종에 있어서도 품종의 개념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신품종의 개발과 실용적인 번식기술이 꾸준히 연구되어야한다. 또한 적지적소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조경수를 이용하는 것이 조경수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조경수로의 개발수종과 또한 이미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조경수종에 대하여도 기능적인 이용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낙엽성 조경수종이 많이 식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 조경수종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식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없고 획일적인 식재 경향이어서 조경의 유형과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알맞는 조경수종의 선택과 폭 넓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4. 조경수종의 개발

새로운 조경수 개발에는 기능적인 면과 함께 미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수종의 이용을 위한 식재설계는 균형, 리듬, 강조, 조화의 설계원리에 따라 색, 질감, 형태, 선의 설계요소를 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조경수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조경수 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한수종에 있어서도 여

러 가지 수형을 나타내고 유전형질이 좋은 수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직립형수종(Fastigiata)은 가로수용 수종으로 가능하고 교목은 왜성수종(Dwarf)으로 개발할 경우 개화시 꽃의 감상이 용이할 수 있다. 그밖에 수향형수종(Weeping), 지엽이 치밀하고 콤팩트는 compact형수종, 포복형수종(Prostrata)등을 개발하면 필요한 공간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딸나무

둘째, 꽃의 경우 색, 크기, 모양, 향기에 특징을 가진 수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잎의 단풍색에서 적색, 황색, 주황색 단풍수종의 개발과 단풍전 생육중의 잎색이 녹색이외에 개엽하면서 적색, 황색인 수종, 줄기의 색, 무늬가 있는 수종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앞으로 이용될 조경수는 현재의 단순한 규격하의 품질에서 미적요소와 기능요소등이 가미된 보다 우수한 품종의 개발이 요구된다.

5. 조경수의 구비조건 및 식재수종

조경수는 가로수와 공원수, 그리고 건물주변이나 울타리용 등으로 구분되며 식재되는 공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비조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구비조건

· 조경수는 수형, 잎의 모양,



▲가로수로 적합한 원추형 은행나무

꽃, 색등이 아름다워야 한다.

· 불리한 환경조건에서도 생장력이 왕성하고 성장속도가 빠른 수종.

· 이식하기 쉽고 전정에 잘 견디는 수종.

· 그 지방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향토수종.

· 내공해 및 병해충에 강하고 방음, 방벽, 방설등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종.

· 자연적인 수형을 지니고 균형이 잡힌 수종.

· 대중성이 항상 있는 수종.

· 계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종.

●대중성이 있는 수종

·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반송, 주목, 스트로브스 잣나무, 전나무, 서양측백, 피라밀향나무, 편백, 곰솔, 회말라야시나무 등.

· 활엽수: 벚나무류,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류, 복자기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계수나무, 프라타너스, 층층나무, 가중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노각나무, 느릅나무, 마가목,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팔배나무, 산사나무, 메타세쿼이아, 피나무, 수수꽃다리, 목련, 자작나무류 백합나무 등

· 열매관상수

교목: 산딸나무, 마가목, 산사나무, 산수유, 팔배나무, 야광나무, 모감주나무, 비목나무, 대팻집나무 등

관목: 낙상홍, 매자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왕보리수나무, 앵두나무, 백당나무, 누리장나무, 가막살나무, 털팽나무, 섬귀불나무 등

· 울타리용: 철쭉류, 개나리, 쥐똥나무, 동백나무, 팽팽나무, 회양목, 화백, 편백, 사철나무 향나무류 등. **조경수**